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에 관한 연구

남윤오*, 신승중*, 류대현*

*한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 namyuno@hanmail.net

A Study on the Online Art Auction System

Yoon-O Nam*, Seung-Jung Shin*, Dae-Hyun Ryu*

*Dept of Computer Science, Hansei University

요 약

미술품 시장의 발전과 함께 미술품 경매가 보다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미술품 경매는 불투명한 가격 결정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여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미술품 경매 방식을 개선하여, 투명한 시장 가격의 형성과 미술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 서론

미술품이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2005년부터 국내의 미술품 경매 시장은 매우 크게 성장하였다. 미술품을 구입한 뒤 나중에 이를 다시 되팔면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에 이은 또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자본이 미술품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

서울옥션과 K옥션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미술품 경매는, 그러나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프라인 경매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경매의 특성상 시간과 지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추정가 등 가격 형성이 불투명하여 그림값의 형성을 시장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부 화랑과 결탁하여 경매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고, 위작에서 자유롭지 못해 커다란 위험을 안고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 미술품 경매는 소수의 투자자만 이용하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미술품 경매가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를 거두었으나, 온라인 경매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경쟁 유발이 부족하여 낙찰가 형성이 중저가에 이루어지므로 화가로부터의 작품 수급이 여의치 못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그림을 판매하는 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은 투자가치가 떨어지므로 투자재로서의 미술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이 미술품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와 온라인 미술품 경매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술품 시장의 저변 확대와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2.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의 구현

(1) 오픈마켓으로 완전 시장 형성

전자상거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기본 개념을 미술품 경매에 도입할 만하다. 화가(또는 화랑)가 미술품 애호가를 상대로 직접 그림을 팔수도 있고, 미술품 애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물물거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모든 거래와 관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픈마켓이 형성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상에서 모든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시간적·지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오픈마켓은 자체적으로 물류 및 유통을 담당하지 않아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의 가격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중저가 미술품 시장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화가가 직접 그림을 공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보다 안정적인 작품의 수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술품 경매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작 방지의 경우, 화가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화가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화랑이나 미술품 애호가 미술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나 진품 보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유도한다. 낙찰 후 위작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

재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가격지수의 결정

오픈마켓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의 결정은 필수이다. 따라서 가격지수를 산출하여 경매 참여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가격형성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수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옥션 가격지수 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가격지수는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산출하는 주가지수 형태의 방식이므로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가격지수 산출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화가의 호당 가격을 구간별로 나누어 일종의 등급을 정한다. 단, 기존의 경매결과를 가지고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호당 가격에 등급을 맞추어야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매의 가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라인 경매 결과를 가지고 호당 가격을 계산하며, 그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매사를 위주로 계산한다. 온라인 경매 결과만 인용하는 이유는, 우선 오픈마켓도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층에 맞는 가격대를 제시해야 하고, 오프라인 경매에서는 가격의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호당 가격은 유화·판화·파스텔화·스케치·에스키스 등 작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등급이 결정된 후에는 등급 조작을 위한 거품 가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화가의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분기 동안은 지정된 등급 내에서만 경매가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등급을 제시한 뒤 오픈마켓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해당 화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결정된 등급은 3개월 동안 유지되며, 3개월 사이 새롭게 종료된 경매의 반수 이상의 낙찰가가 등급 내 최고가에 해당되면, 다음 분기에는 한 단계 상위 등급으로 조정된다(반대의 경우 한 단계 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

등급이 분기별로 발표되고 과거의 등급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해당 화가의 투자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다. 등급과 평균 호당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 형태의 가격지수보다 훨씬 쉬운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사실상의 최저가를 제시하는 추정가 방식과 달리 화가의 등급은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폭을 넓게 제시하므로 소비자가 판단할 여지가 훨씬 넓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소비자가 개입할 여지가 넓다는 것은 곧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는 것이므로 경매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절되면서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질 것이다.

(3) 작품 수준에 따른 경매 진행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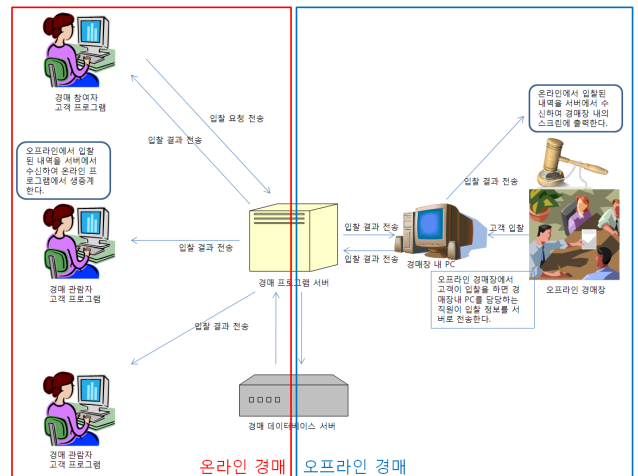
위와 같이 가격지수를 결정하더라도 개선할 점은 존재한다. 모든 작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매될 경우 가격 형

성이 투명하고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작품의 질과 희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에서도 수작과 범작을 나누어 경매를 진행하면, 수작은 수작대로 작품의 질과 희소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찰자의 경쟁이 붙어 낙찰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다. 편의상, 수작 경매를 프라임 경매, 범작 경매를 일반 경매, 부동산의 급매물처럼 판매자가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가격이 시세보다 낮더라도 경매를 희망하는 경우를 픽업 경매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당연히 프라임 경매에서 많이 거래되는 화가일수록 더욱 신뢰도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림은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자인 화가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완성도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수작이 우대받고 범작은 걸리지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어야 화가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고, 이는 미술품 시장 전체의 수준 향상 및 투자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작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못하다면, 오픈마켓 내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 위주로 프라임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경매

오픈마켓에서 경매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경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동시 경매의 개념은 간단하다. 오프라인 경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같은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령, 오프라인 경매장에 참석해 입찰하는 사람과, 인터넷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경매에 입찰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이 때 온라인 경매 프로그램은 ActiveX나 Flex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같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그림 1) 동시경매 구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동시 경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앙 서버와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력부, 출력부, 중계부가 그것이다.

입력부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서버로 전송되는 부분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입찰가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오프라인에서는 참여자의 입찰정보를 PC에 수동 입력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입력부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가 중앙 서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다.

출력부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재의 경매 참여자, 입찰가, 호가 등 경매 입찰에 필요한 정보들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이것을 참여자에게 다시 보여주어 원활한 경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경매장 내에 별도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보여주고, 사회자가 이를 고지한다.

중계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오프라인 경매장을 생중계하여 스트리밍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고, 오프라인 경매장에서는 출력부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 때 온라인 중계는 동시에 접속 중인 여러 사용자에게 실시간 중계할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력부, 출력부, 중계부를 한 곳에 구성하면 그림27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각각 입력부, 출력부, 중계부가 한 화면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경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2) 동시경매에서 온라인 경매 프로그램 실행예시

(5) 온라인 미술품 경매의 보안

미술품 경매에서의 보안은, 물론 폭넓게 이야기하면 경매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도난 방지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지

만, 여기서는 온라인 경매의 보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온라인 경매는 전자적 부호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을 경우 조작된 데이터가 전송되어 경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낙찰가 등 경매 결과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보안이 허술하여 잘못된 경매 결과가 도출된다면 시장 가격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는 노릇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두기 때문에 보안이 허술하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커로부터의 온라인에서의 공격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보안을 위한 다양한 장치는 필수이다. 방화벽 설치 등 서버의 보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웹 방화벽 설치 등 웹 보안까지,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꾸준히 해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보안에 허술할 경우, 미술품 경매의 결과가 왜곡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식으로 해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경매 시스템의 신뢰도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수습하지 못할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기대효과 및 평가

(1) 가격 결정의 투명성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결정의 투명성이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내에서 최저가와 최고가를 설정해 작전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분기별로 등급의 조정이 자유로운 열린 시장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항 목	오픈마켓 + 온·오프 동시경매	오프라인 경매	온라인 경매
가격결정	시장에서 결정하며, 최고가/최저가 적용	경매사에서 추정가를 결정하며, 최고가 없음	경매사에서 시작가 결정하며, 최고가 적용 가능
가격제	개선된 호당 가격제	기존의 호당 가격제	호당가격제 미적용
가격대 형성	동시경매로 낙찰가 상승 유도하고, 최고가 설정으로 인해 거품 방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거품 발생 가능	주로 저렴한 가격대로 낙찰가 형성
가격지수	경매 결과가 반영된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경매에 반영함	경매 결과가 반영된 가격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 경매에 직접적인 반영은 없음	가격지수 없음
작품수급	화가 또는 소장자가 직접 등록	소장자가 경매 의뢰	화가에게 직접 매입
작품의 질	등급 관리와 경매 세분화를 통해 작품의 질을 반영	경매 출품 자체를 심사할 거쳐 등록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질이 낮은 작품을 걸러 내지 못함
환급성	오픈마켓 등을 통한 재경매 가능	재경매 가능	자사 경매 작품만 재경매 가능
위작방지	판매자의 책임	판매자의 책임	경매사가 보증

<표 1> 본 시스템과 기존 경매의 비교

현재 대형 경매사에서 가격지수를 발표한다고 있다고 하지만, 신뢰성이나 활용성의 측면에서 큰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살펴본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지수의 결정은 외부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장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므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화가 개개인의 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의 투자가치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 중저가 미술품 시장의 발전

미술품 시장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화가의 등장으로 연결될 것이고, 신예 작가의 그림이 처음부터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가격대가 중저가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중저가 미술품 시장에 양질의 미술품 공급이 확대되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매사와 오픈마켓 등의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중저가 미술품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저가 미술품의 저변이 확대되면 미술품 시장의 구조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화랑이나 아트페어 또는 전시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담이지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술품 양도세 부과” 역시 이러한 중저가 미술품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의 등장

투명한 가격 결정이 가능해지면, 투자재로서의 미술품의 가치를 공인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등장이 예상되는 파생 비즈니스로 미술품 임대, 미술품 교환, 미술품 담보대출 등이 있으며, 현재 활성화되기 시작한 아트펀드도 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임대는, 현재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아트뱅크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확대한 것으로, 거주지나 사무실에 걸어 둘 미술품을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미술품 교환은, 여러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애호가나 다른 애호가의 소장 그림으로 맞바꿀 수 있는 중개 서비스이다. 미술품 담보대출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미술품을 담보로 맡아두고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파생 비즈니스는 모두 시장에서의 투명한 가격 결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만약 가격 형성이 불투명하다면, 임대 시 배상가액을 설정할 수 없어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교환 시 상호 맞바꿀 미술품의 가치가 불분명하여 교환이 성립할 수 없으며, 대출 시 담보액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파생 비즈니스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4)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의 가치 인정

이처럼 미술품 시장이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보다 많은 미술품 애호가나 투자자가 등장하고, 또한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고

가의 미술품은 쉽게 구입할 수 없지만, 중저가 미술품 시장이 발전한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듯 부담없이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은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재이다. 또한 주식시장과 상호의존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미술품은 단기간에 환급할 수 있는 투자수단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론

이미 검증된 투자수단으로서의 미술품의 가치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기존 투자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흥 투자재로서 미술품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GDP 규모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으로 미술품 시장이 더 성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매사가 등장하여 더 많은 미술품을 시중에 유통하게 될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소장 목적은 물론이고 투자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소장하는 애호가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불투명한 일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더 크게 두드러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스템은, 이러한 불투명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한 시장이 형성되고 미술품의 적정가를 누구나 유추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금 미술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투자에 뛰어 들 수 있다.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어 미술품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은 화가가 양질의 그림을 창작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미술품 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당분간 미술품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또 다른 투자재로서의 미술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술품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순용, 「돈이 되는 미술」, 학교재, 2006
- [2] 이규현, 「미술경매 이야기」, 살림, 2008
- [3] 최병식, 「아트마켓과 컬렉션」, 미간행, 2007
- [4] 박경민, 「아트재테크」, 책든사자, 2006
- [5] 피로시카 도시, 「이 그림은 왜 비쌀까?」, 웅진지식하우스, 2007
- [6] 이인혜, 「미술품 가격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2007
- [7] 권상춘, 「한국 미술품가격 결정요인과 가격지수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원, 2007
- [8] 이지은,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원, 2008
- [9] 구본진, 「미술품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건국대학원, 2005
- [10] 한여훈, 「투자로서 기업의 미술 컬렉션」, 중앙대학원, 2006